

2026년 6월 20일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사서직렬】

문제책형	시험과목	국어(15문), 한국사(15문), 영어(20문), 자료조직개론(25문), 정보학개론(25문)
①		

응시자 준수 사항

-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정답가안 공개 : 2026. 6. 20.(토)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 이의제기
기간 : 2026. 6. 22.(월) 12:00 ~ 2026. 6. 24.(수) 17:00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 최종정답 공개 : 2026. 7. 1.(수) 12:00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4]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재었다.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등 뒤에 받으며,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 가고 있다. 인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 똑바로 정면으로 눈을 준 채 조금도 흠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

눈앞이 빙빙 돈다. ㉔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㉕ 순간, 그는 총을 짊어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㉖ 내가 지금 피살당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싸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두 총구에서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 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이마에서 줄곧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의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의식이 자주 흐려진다. 그는 폭 고개를 묻고 쓰러졌다. 위기 일발, 다시 겨룬다. 또 어깨 위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자꾸 흠어지는 의식. 놈들의 사격이 똑 그쳤다. 적은 전후 좌우방으로 흠어져서 육박하여 오고 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폭 쓰러졌다. 의식이 깜박 사라진다. 갓 지나간 격렬한 총성의 여음이 귓가에서 감돈다. 몸 어느 한 구석이 쿡 쿡 찢리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머리를 땅 하고 내리친다. 그는 순간 의식을 잃었다.

오른편 팔 위에 격동이 일어난다. 그는 간신히 왼편 손으로 오른편 팔을 앞쓸어 더듬었다. 손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 손끝과 손가락 사이에는 피, 검붉은 피가 흠뻑 젖어 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먼지와 거미줄이 뽀얗니 늘어 붙은 찢어진 천장 구멍으로 사라져 간다. 방안이다. 방안에 눕혀져 있는 것이다. 이따금 흰 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오른다. 점점 멀어져 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그의 의식도 희미해진다.

그 후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㉗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띠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떤 일일까……? 막연한 의식의 착오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는 …… 정확한 …… 그는 몸을 일으키려고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뭉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짊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역센 손아귀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㉘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짊어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㉙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㉚ 눈에 함뱍 싸인 흰 독길이다. 오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 가시오. 남쪽으로 내 달은 길이오. 것처럼 가고 싶어 하는 길이니 유감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에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 초, 일 까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눈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서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뒷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흠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매고 본부로 돌아들 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안으로 들어들 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맡아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던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㉛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 갔다. 흰 눈 위다. 햇별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 오상원, 「유예」-

【문 1】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철학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작가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③ 짧은 호흡의 문장을 통해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물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문 2】윗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은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 ② ‘피해자’는 주인공에게서 도망가다가 죽게 되었다.
- ③ 주인공은 기밀을 지키기 위해 적의 신문을 견뎠다.
- ④ 주인공은 적군에게서 탈출하던 중 총에 맞게 되었다.

【문 3】윗글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할 때, ㉠~㉣의 영상 제작에 대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결심에 찬 내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총을 세계 잡는 주인공의 손아귀를 확대하여 촬영한다.
- ② ㉡: 마지막까지 신념을 지키려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주인공의 의지에 찬 표정을 확대하여 촬영한다.
- ③ ㉢: 운명에 대한 원망과 좌절을 나타내기 위해 주인공의 내적 독백을 효과음으로 삽입한다.
- ④ ㉣: 흐려지는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눈 위에 햇볕이 비치는 장면에서 점차 화면이 어두워지고 소리가 작아지도록 한다.

【문 4】㉠~㉣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유예’의 서술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혼용이다. 즉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인공의 의식을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1인칭 ‘나’의 시점에서 서술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문 5】다음 <보기>의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음의 분류 기준은 자음이 실현될 때 일어나는 ‘방해 과정’을 중시한다. 방해가 일어나는 위치를 조음 위치,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을 조음 방식이라고 한다. ‘ㄱ’의 경우에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며, 조음 방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다. ‘ㄴ’의 경우에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며, 조음 방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음이다.

- | | | | |
|---|------|-----|------|
| | ㉠ | ㉡ | ㉢ |
| ① | 연구개음 | 파열음 | 양순음 |
| ② | 연구개음 | 파열음 | 치조음 |
| ③ | 치조음 | 마찰음 | 경구개음 |
| ④ | 치조음 | 마찰음 | 연구개음 |

【문 6】다음 <보기>에서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제7장>

불근 새 그를 므러 寢室(침실) 이페 안즈니 聖子革命(성자혁명)에 帝祐(제호)를 뵈스븍니

뵈야미 가칠 므러 즘겿 가재 연즈니 聖孫將興(성손장흥)에 嘉祥(가상)이 문제시니

- 「용비어천가」(1447) -

[현대어 풀이]

<제7장>

불은 새가 글을 물어 침실의 지게문에 앉으니, 성자가 혁명을 일으키며 하늘이 내린 복을 보이니
뱀이 까치를 물어 나무의 가지에 앉으니, 성손이 장차 일어남에 기쁜 징조가 먼저 나타나니

- ① ‘뵈야미’를 보니, 중세에는 오늘날 쓰이는 주격 조사와는 다른 형태의 주격 조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불근’과 ‘안즈니’를 보니, 중세에는 앞 음절 종성에 쓰인 자음을 뒤 음절 초성에 덧쓰는 거듭적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뵈스븍니’를 보니, 중세에는 오늘날과는 달리 어말 어미를 활용하여 객체 높임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군.
- ④ ‘그를’을 보니, 오늘날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이는 목적격 조사와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중세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군.

【문 7】다음 <보기>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급행열차 → [그팽널차]

㉡ 끓는 → [끌른]

㉢ 알약 → [알락]

- ① ㉠에서는 ㉢과 달리 2회 이상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서는 각각 탈락이 1회 이상 일어났다.
- ③ ㉡과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유음화이다.
- ④ 음운 변동의 결과 ㉠, ㉡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8~11]

[앞부분의 줄거리]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나는 도쿄에서 기차로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관부 연락선에 올라 배 안의 목욕탕에 들었다. 나는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이 조선 노동자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엿듣게 된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 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 데에 일 원 내지 이 원이니까—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령 방적회사의 여공 같은 것은 임금도 썩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제일 험하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일 원 오십 전으로 이 원까지라고. 가령 지금 천 명만 맡아 가지고 와서 보구려. 이삼 삭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제하고라도, 일천 삼사백 원, 잘만 되면 근 이천 원은 간데없는 것일 게니…… 하하하, 나도 맨 처음에—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해 갔지만—그때에 오백 명 모아다 주고, 실살고로 남긴 것이, 팔구백 근 천 원이었고, 둘째 번에는 올가을에 팔백 명이나 훗카이도 탄광에 보내고, 근 이천 원 돈이 들어왔다우.”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의 침이 마르게 천 원, 이천 원을 신이 나서 되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에, 에.” 하며, 일평생 들어 보지도 못하던 천 원 이천 원 소리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동색(銅色) 거구를 벌떡 일으켜, 다시 욕탕 속에 출렁 집어넣으면서, 만족한 듯이 또다시 말을 붙였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하구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것 무엇 있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임은(賃銀)이 험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 먹기라고 폭 살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 주는 데야 제 아무런 농이기로 안 따라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험하긴 고사하고 굶어 똥진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술까지, 도도히 설명을 해 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별안간에 욕객의 한 때가 디밀어 들어오기에,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 생각하며 몸을 흔치기 시작하였다.

스물두셋쯤 된 ㉠ 책상 도련님인 그때의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해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할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 자(工夫字)나 얻어 하였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함일 따름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 째는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는 귀가 번쩍하였다. 나도 팔구 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들어 본 일이 없었다.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발을 갈라고 한다. 그러나 ㉡ 발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의 복옥(馥郁)한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淺慮)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胃弱)’이라는 고등유민 계급의 유행병에나 걸릴까 보아서, 대팻밥모자에 연경(煙鏡)이나 쓰고, 아침저녁으로 호미 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詩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일 년 열두 달, 우마(牛馬)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이 붉는 것도 시일까? 그들이 삼복의 끓는 햇볕에, 손등을 대면서 호미 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름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열 방울의 땀과 백 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주름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발을 품삯이다.

- 염상섭, 「만세전」-

【문 8】윗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제 지명을 언급하여 사실성을 더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교체하며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을 통해 사회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에 역동성이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있다.

【문 9】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은 ‘나’가 노동에 대해 인지한 비참한 면모를 드러낸다.
- ③ ‘나’가 ㉡을 떠올린 이유는 목욕탕에서 엿들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 ④ ㉠과 ㉡은 모두 목욕탕 속 일본인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들이다.

【문10】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인 노동자들은 정당한 품삯을 받고 있다.
- ② 어떤 보수를 받는지와는 상관없이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 ③ 앞으로 더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인에게 착취당할 것이다.
- ④ 조선인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을 하더라도 얻는 것은 배고픔 뿐이다.

【문11】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924년에 연재를 시작한 「만세전」이 「묘지(墓地)」란 제목으로 잡지 <신생활>에 연재되던 때 검열에 걸려 연재 3회분이 전문 삭제되었다. 잡지의 편집자는 “상설 군의 「묘지」는 더 말할 수 없는 참살을 당하였습니다.”라는 말로 분노를 드러내었다. 이때 삭제되었던 ‘연재 3회분’은 이후 단행본에 담겼다. 윗글은 이 가운데 일부이다.

- ① 당대의 잡지 구독자들은 검열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웠겠군.
- ② 작품 창작 당시의 시대적 현실이 전개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군.
- ③ 당대 현실을 담은 다른 사실주의 소설들 중에도 검열을 당한 사례가 있겠군.
- ④ 작가는 ‘연재 3회분’ 이후의 연재본에도 ‘연재 3회분’과 비슷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2~13]

(가)

㉠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덤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 고양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문12】(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법을 통해 애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③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설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문13】㉠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② ㉡에는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모두 부여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에게 그리움의 매개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4~15]

1986년 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다국적 패스트푸드 기업이 로마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전통적 명소인 스페인 광장에 매장을 연 것이다. 해당 기업은 입점에 앞서 로마시와 협의를 거쳤고, 그 결과 매장에서 이탈리아의 식문화를 반영한 지중해식 샐러드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로마의 역사적 공간에 패스트푸드 매장이 들어선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거부감을 느꼈다. 이들은 패스트푸드의 확산에 대항하여 전통적 식문화를 지키자는 취지의 ‘슬로푸드 운동’을 시작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탈리아는 슬로푸드 운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라는 명칭에는 각각 ‘빠르다’와 ‘느리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일부 사전은 이러한 표면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패스트푸드는 주문 즉시 완성되어 나오는 음식으로 햄버거, 피자 등을 이른다”거나, “슬로푸드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만들고 먹는 음식”이라고 정의한다. ㉠ 하지만 이러한 수식어는 오히려 두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두 개념을 단순히 조리 및 제공 속도나 특정 메뉴의 이름에 한정하여 이해하려 들면, 그 이면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피자를 패스트푸드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본래 피자는 신선한 식재료를 엄선하여 화덕에 굽고, 식탁에 둘러앉아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풍속을 지닌 음식으로 오히려 슬로푸드에 가깝기 때문이다. 햄버거 역시 유기농 밀로 만든 빵에 윤리적으로 사육된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넣어 만든다면 패스트푸드라 할 수 없다. 반대로 오랜 전통을 지닌 음식이라 할지라도 대량 생산을 위해 화학 첨가물을 다량 가미하고 공장식으로 조리해 낸다면 그것은 패스트푸드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맥락에서 슬로푸드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스트푸드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탐사전문 기자 에릭 슬로서는 그의 저서에서 패스트푸드를 이해하려면 매장에서의 서비스 속도가 아니라,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소비자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를 통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육류를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노동력 착취,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산업 재해,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이 야기하는 생태계 파괴 등이 패스트푸드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슬로푸드 운동의 창시자 카를로 페트리니는 슬로푸드의 원칙을 ‘좋은, 깨끗한, 공정한’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압축했다. 이는 단순히 맛과 품질이 훌륭한 식재료를 넘어서, 생산지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며,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지는 음식을 의미한다. 자연을 훼손하거나 농민을 착취하여 만들어진 음식은 결코 슬로푸드가 될 수 없다. 결국 슬로푸드란 패스트푸드가 초래한 획일화와 파괴에 맞서 우리 삶의 생물 다양성, 문화 다양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수호하려는 지향점 그 자체이다.

패스트푸드가 효율성과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현대 자본주의의 단면이라면, 슬로푸드는 잊힌 과거의 가치를 회복하여 병든 현재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다. 현재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패스트푸드의 힘은 막강하지만,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음식 문화 속에 내재된 ‘느림’의 철학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려는 지속적인 성찰과 노력이 요구된다.

【문14】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릭 솔로서는 패스트푸드가 유발하는 환경 파괴, 노동 착취 문제에 주목했다.
- ② 로마 스페인 광장에 다국적 패스트푸드 매장이 입점한 사건은 슬로푸드 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피자나 햄버거와 같은 특정 메뉴들은 조리 방식이나 식재료의 출처와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패스트푸드로 분류된다.
- ④ 카를로 페트리니가 제시한 슬로푸드의 원칙에는 음식 생산 과정에서의 윤리적 대우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문15】윗글의 ㉠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리 기술의 발전으로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의 조리 시간 차이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 ② 음식의 메뉴명과 조리 속도에만 집착할 경우, 식재료의 본질적인 가치 기준을 간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 ③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조차 지중해식 샐러드처럼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④ 전통 음식은 아무리 대량으로 가공되어 빠르게 제공되더라도 그 역사성 덕분에 슬로푸드의 지위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사 15문】

①책형

【문 1】다음 지도와 같이 행정 구역을 편제한 국가의 지방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 ② 각 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 ③ 지방 사족들의 자치 기구인 유향소가 설치되었다.
- ④ 지방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지위가 낮아졌다.

【문 2】다음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신시(申時)에 근정전에서 즉위하여 백관의 하례를 받고 대사령(大赦令)을 중외해 내렸으며, 대비의 명에 의하여 전왕을 폐위 연산군으로 강봉하여 교동에 유폐하고, 왕비 신씨를 폐하여 사제(私第)로 내쳤으며, ……
- (나) 왕대비가 교서를 내려 중외에 선유하였다. “선조 대왕께서 불행히도 적사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장유(長幼)의 차례를 어기고 광해로 세자를 삼았는데, … 위로는 종묘사직에 죄를 얻고 아래로는 만백성에게 원한을 맺었다. … 이에 (광해를) 폐위하고 적당한 데 살게 한다.”

- ① 예송이 일어나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였다.
- ②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는 경신환국이 일어났다.
- ③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는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 ④ 사림이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 등으로 인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

【문 3】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고려 왕실과 몽골 황실 사이의 혼인은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이어지면서 고려 국왕은 대대로 몽골 황실의 부마가 됐다. 그렇다고 고려가 단순히 몽골의 부마국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강화가 성립됐을 때 양국은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 국왕의 지위뿐 아니라 독립 왕국으로서의 지위도 보장받았다. 다만 이때의 책봉은 고려의 왕위 계승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고려 국왕을 직접 임명하고 퇴위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행사됐다.

- ① 수시력이 채용되었다.
- ② 9재 학당이 세워졌다.
- ③ 초조대장경이 간행되었다.
- ④ 상정고금예문이 인쇄되었다.

【문 4】다음 밑줄친 저서를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경세유표』는 어떤 내용인가? 관직제도, 군현제도, 토지제도, 부역, 공시, 창저, 군사제도, 과거제도, 해세, 상세, *마정, 선박 관리 등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 현재 실행 가능 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경을 세우고 기를 나열하여 우리의 옛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정: 말의 사육, 개량, 번식, 수출입 따위에 관한 행정

- ①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 ② 주자서절요를 저술하였다.
- ③ 검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하였다.
- ④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제시하였다.

【문 5】다음 (가)~(다)를 체결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제2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 (나) 제1조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아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 제2조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 (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에 의해 집행할 것.
-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 ① (가) - (나) - (다)
- ② (나) - (가) - (다)
- ③ (나) - (다) - (가)
- ④ (다) - (가) - (나)

【문 6】다음 (가), (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교학(敎學)과 지관(止觀)을 함께 해야 한다. 교종은 외적인 공부에 치중하고, 선종은 내적인 공부에 치중한다. 따라서 내외겸전(內外兼全)하지 못하는 수행은 참다운 수행의 방법이 아니다.
- (나) 선정(定)은 본체(體)이고 지혜(慧)는 작용(用)이다. 지혜는 본체를 마주하여 나온 작용이므로 선정을 떠나지 않고, 선정은 작용을 마주하여 나온 본체이므로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 보 기 >

- ㄱ. (가) -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ㄴ. (가) - 수행 방법으로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 ㄷ. (나) -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 ㄹ. (나) - 천태종을 창시하여 불교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7】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호암사에는 정사암이 있다. 국가에서 장차 재상(宰相)을 뽑을 때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후에 열어 보아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삼국유사』-

- ①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② 빈민 구제 제도인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 ③ 박·석·김 3성(姓) 중에서 이자금을 선출하였다.
- ④ 낙랑군과 왜를 연결하는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다.

【문 8】다음 (가)에 들어갈 국가와 관련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가) (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 ①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② 중앙 교육 기관으로 국가감을 설치하였다.
- ③ 집사부를 중심으로 중앙 정치를 운영하였다.
- ④ 장문휴 장군을 보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문 9】다음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에서 사신을 보내 낙타 50필을 가져왔다. 그러나 왕은 “(가) 이/가 예전부터 발해와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문득 다른 생각을 내어 옛날의 맹약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으니 무도함이 심하다. 그러니 멀리 화친을 맺어 이웃으로 삼을 만하지 못하다.” 하고 교병을 끊었으며, 그 사자 30명을 바다에 있는 섬으로 귀양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밑에 매어 놓아 모두 굶어 죽게 했다.

- 『고려사절요』권1, 태조 25년 10월 -

- 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장기 항전을 전개하였다.
- ② 윤관의 건의에 따라 별무반을 편성하여 대비하였다.
- ③ 국경 지역에 광군 30만을 배치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④ 최무선이 제작한 화포를 사용하여 진포에서 적선을 격파하였다.

【문 10】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곁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4.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짓밟고 민족적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가져오게 한 현 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속히 물러가라.
5. 3·15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해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시행하라.

- ①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다.
- ② 진보당 사건이 일어났다.
- ③ 반민 특위가 결성되었다.
- ④ 발철회 개헌이 단행되었다.

【문 11】다음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왕이 사신을 보내 겸손한 말과 중후한 예로 을파소를 불러, 중외대부의 벼슬을 주고 직을 더하여 우태로 삼고 말했다. … (을)파소는 비록 뜻은 나라에 허락했지만 받은 직위가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여 말했다. … 왕이 그 뜻을 알고, 곧 을파소를 국상에 제수하여 정사를 맡게 했다.

- ①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② 불교를 수용하였다.
- ③ 태학을 설립하였다.
- ④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문 12】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일제 통치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명령에 따른다.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방의 경계,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조선 태형령을 공포하였다.
- ② 치안 유지법을 시행하였다.
- ③ 국가 총동원법을 마련하였다.
- ④ 황국 신민 서사를 제정하였다.

【문 13】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자의 나이가 열 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하였다.
- ② 국가의 중대한 일은 제가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 ③ 왕이 없는 대신 읍군·삼로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④ 낙동강 하류에서 일찍이 철기 문화와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문 14】다음 내용이 조선에 유포된 이후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조선은 아시아의 요충지에 있어 반드시 쟁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워지면 중앙 및 동아시아의 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부터 시작할 것이다. ……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 ①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② 조선과 일본 간 조일 무역 규칙이 체결되었다.
- ③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화정책을 총괄하였다.
- ④ 강화도 조약을 맺은 뒤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문15】다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왕명에 따라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
- ②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 ③ 불씨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 ④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도식화한 성학십도를 저술하였다.

【문 1】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 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easoning with Machines Laboratory at the University of Oxford got a team of doctors to create detailed, realistic scenarios that ranged from mild health issues you could deal with at home; through to needing a routine *GP appointment, an **A&E trip, or requiring calling an ambulance. When the chatbots were given the complete picture they were 95% accurate. “They were amazing, actually, nearly perfect,” researcher Prof Adam Mahdi tells me. But it was a very different story when 1,300 people were given a scenario to have a conversation with a chatbot about in order to get a diagnosis and advice. It was the human-AI interaction that made things unravel as the accuracy fell to 35% - two thirds of the time people were getting the wrong diagnosis or care.

*GP 일반의
**A&E 응급실

Chatbots show high accuracy when given _____ (A) _____ information, but their _____ (B) _____ drops sharply during human interaction due to limitations in how information is communicated.

- | | (A) | (B) |
|---|----------|-------------|
| ① | medical | response |
| ② | broken | accuracy |
| ③ | complete | stimulus |
| ④ | full | performance |

【문 2】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ve all experienced craving in the aftermath of pleasure.

- (A) The simple solution is to keep eating, or playing, or watching, or reading. But there’s a problem with that. With repeated exposure to the same or similar pleasure stimulus, the initial *deviation to the side of pleasure gets weaker and shorter and the after-response to the side of pain gets stronger and longer, a process scientists call neuroadaptation.
- (B) Whether it’s reaching for a second potato chip or clicking the link for another round of video games, it’s natural to want to re-create those good feelings or try not to let them fade away.
- (C) That is, with repetition, our **gremlins get bigger, faster, and more numerous, and we need more of our drug of choice to get the same effect. Needing more of a substance to feel pleasure, or experiencing less pleasure at a given dose, is called tolerance. Tolerance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addiction.

*deviation 이탈, 편향
**gremlin 그렘린(기계에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가상의 존재)

【문 3】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can hardly blame a dark-skinned person for not whitening his skin, but people can and do accuse Africans or Muslims of failing to adopt the norms and values of Western culture. Which is not to say that such accusations are necessarily justified. In many cases there is little reason to adopt the dominant culture, and in many other cases it is an all but impossible mission. African Americans from a poverty-stricken slum who honestly try to fit into the hegemonic American culture might first find their way blocked by institutional discrimination-only to be accused later of not having made sufficient effort, and so they have nobody but themselves to blame for their troubles.

- ① The Unfair Blame on Minorities
② The Disadvantages of Racism
③ The Fall of the Western Culture
④ Why Do the Minorities Blame Themselves for Being Discriminated?

【문 4】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NASA’s Earth Science Division(ESD) established the CSDA(Commercial Satellite Data Acquisition) program to identify, evaluate, and acquire commercial remote sensing data that ① enhances NASA’s Earth science research and applications. CSDA provides structured *on-ramping opportunities for emerging commercial satellite data vendors, ② enabling NASA to continuously integrate innovative data sources as the private sector evolves. By leveraging these partnerships, NASA’s ESD aims to accelerate scientific discovery and ③ restrict applications of Earth observation data for the NASA Earth science research and applications community and societal benefit. Since its initial pilot, the CSDA Program has conducted three on-ramp activities, resulting in the addition of several vendors into ④ sustainment.

*on-ramping 새롭게 등장하는

【문 5】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Students at R.E. Mountain Secondary will benefit from modern learning spaces, ①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daily school experience. The addition will include new classrooms as well as specialty learning spaces, creating mor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select electives, such as art and cooking, ② that further support their learning and growth. The Province is investing approximately \$42 million in the addition. “Families in Langley are part of a growing community, and students need space to learn and thrive,” said Lisa Beare, Minister of Education and Child Care. “This new addition creates 300 more seats and helps ③ meeting rising enrolment in Willoughby. It also means more access to modern classrooms and learning spaces. We are making sure students have the tools they need today, while ④ building

【문 6】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y won’t you include me?” I whined into my cell phone as if I were tattling on an older child for neglecting me. As if I hadn’t been invited to a birthday party. “You have to live your life,” my mother said. “You’re twenty-five. It’s an important year. Your dad and I can handle this together.” More news had come and none of it was good. Dr. Lee, an *oncologist in Eugene, had diagnosed her with stage IV **pancreatic cancer. There was a 3 percent chance of survival without surgery. With surgery, it would take months to recover, and even then, there was only a 20 percent chance of emerging cancer-free. My father was fighting for an appointment at MD Anderson Cancer Center in Houston for a second opinion. Over the phone my mom pronounced it “pancry-arty” cancer and “Andy Anderson,” which led me to believe our only hope lay in the hands of some kind of Toy Story character.

*oncologist 종양전문의
**pancreatic cancer 췌장암

- ① worried and helpless
- ② indifferent and sarcastic
- ③ excluded and independent
- ④ angry and frightened

【문 7】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Humankind is facing ① unprecedented revolutions, all our old stories are crumbling, and no new story has so far emerged to replace them. How can we prepare ② ourselves and our children for a world of such transformations and radical uncertainties? A baby born today will be thirty-something in 2050. If all goes well, that baby will be around in 2100, and might even be an active citizen of the twenty-second century. What should we teach that baby that will help him or her ③ to survive in the world of 2050 or of the twenty-second century? What kind of skills will he or she need in order to get a job,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around him or her, and ④ navigating the maze of life?

【문 8】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I started taking lessons once a week at the most ① embarrassing place one ② can learn how to play the guitar—the Lesson Factory. The Lesson Factory was like the Walmart of guitar lessons. It was connected to the Guitar Center and inside there were about ten soundproof cubicles, each ③ equipped with two chairs and two amplifiers and your very own defeated musician recruited off Craigslist. I was lucky enough to be paired with a teacher I actually liked, who ④ must consider me a welcome break from prepubescent boys who exclusively wanted to learn how to play Green Day songs and the intro to “Stairway to Heaven.”

【문 9】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cial scientists have long studied traps where each individual does what she thinks is best for herself (such as overfishing in a local pond), even though, when everyone makes the same choice, it leads to a bad outcome for all (the pond stops producing any fish). If the group could coordinate (such as by setting a limit on how many fish each resident can take), the long-term outcome would be far more fish for everyone. These traps are called collective action problems (or sometimes social dilemmas). Preteens are trapped in a collective action problem when they arrive for their first day of sixth grade and see that some of their classmates have gotten smartphones and are connecting on Instagram and Snapchat, even during class time. That puts pressure on them to get a smartphone and social media, even though all students would be better off if none of them had these things.

- ① the positive long-term result of a limit on overfishing
- ② the influence of adopting technologies from early ages
- ③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egoism in solving social dilemmas
- ④ the inescapable cycle of peer-driven tech adoption among preteens

【문 10】다음 글에 나타난 Anette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school started up for the summer session, before the crops had to be harvested, Anette was told that she could attend when she wasn’t needed at home. Mother Pedersen gave her a slate and a shiny new lunch bucket but warned her, “They cost a dime. A whole dime, do you understand? If you lose them, you can’t go to school anymore. And come right home after. No *dawdling.” Anette ran the mile north carrying the slate and bucket along with a **flicker of hope, hugging them carefully, terrified that all three would be taken away from her, or fall to the earth and break into pieces. But school hadn’t turned out to be much better than her new home; she couldn’t understand English, her overworked muscles ***cramped up from sitting at the bench for so long, and sometimes she fell asleep without warning. The other children—twelve assorted Norwegians, Swedes, and Germans—were polite, but they all knew that she was only a hired girl with no family. So they kept their distance.

*dawdle 꾸물거리다
**flicker 깜빡거리다
***cramp up 경련이 일다

- ① indifferent → passionate
- ② doubtful → comforted
- ③ confident → insecure
- ④ expectant → frustrated

【문11】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might be thinking: No, humans are different! We are smarter than animals, we are rational beings, we are self-aware, we plan ahead, we are free, we are moral agents. Hence we have rights that other animals do not have, and we are entitled to use other animals as we wish. But, as Bentham pointed out, this argument has the implication that human infants—who are less rational, less self-aware, and less capable of planning ahead than many nonhuman animals—would also lack rights, and we would thus be entitled to use them as we use animals. The same would hold for some humans beyond infancy who, whether from a genetic abnormality, or brain damage, will never match the cognitive capacities of some nonhuman animals. Moreover, a series of studies has shown that differences in mental capacities don't really explain why people give humans moral priority over other animals. On the contrary, when subjects were asked to say whom they would help in a situation in which they must choose between a human and a chimpanzee, 66 percent chose to help the human, even when told that the chimpanzee had more advanced mental capacities than the human.

- ① 인간은 동물보다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갖춘 이성적 존재이다.
- ② 유아를 성인보다 인지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 ③ 인지 능력의 차이는 인간의 도덕적 우선권을 부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 ④ 동물의 인지 능력이 인간을 능가할 수 있으므로 동물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문12】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e arts are a study on what it is to be human: they tap into our subjective experience of the world and help us to make sense of our lives. This ① enrichment of the subjective *realm is difficult to quantify and by trying we reduce the very art we wish to protect. A school that shrinks the arts provision that its pupils can access is making a decision about what they think their ② priorities should be. If they are guided by **utilitarian choices then it is easy for them to cut back on arts programmes because it is far less ③ difficult to justify the arts on these terms than, say, maths. But if they are guided by the desire to educate their pupils as to what is important to them as human beings to make sense of the world and their place within it, then they will do their very best to ④ ensure the arts have a proper and sustainable place in their curriculum.

*realm 영역, 왕국
**utilitarian 실용적인, 공리주의의

【문13】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ngland's updated school food standards aim to tackle rising childhood obesity by removing deep-fried foods and sugary desserts. School meals are vital for children's health and learning, especially for disadvantaged groups most affected by obesity. However, a Brighton pilot showed a 15% drop in meal uptake, with students preferring packed lunches that are often less healthy. Schools and caterers face budget cuts when uptake falls, while older pupils may reject unappealing food. Ministers must balance stricter nutrition rules with maintaining participation, adequate funding, and student preferences. The government seeks a "transformation in enjoyment" alongside better nutrition, but success requires evidence-based adjustments, listening to schools, and recognizing that school food alone cannot solve poverty and diet problems. Simply tightening standards risks unintended consequences.

- ① Government should consider various issues for school meal reform.
- ② Students should participate in school meal reform.
- ③ Both taste and nutrition should be the sole major concerns in school catering.
- ④ Government must pass a law to lower the standards for school meals.

【문14】다음 중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last few decades have been the most peaceful era in human history. Whereas in early agricultural societies human violence caused up to 15 percent of all human deaths, and in the twentieth century it caused 5 percent, today it is responsible for only 1 percent. Ye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rapidly *deteriorating, **warmongering is back in vogue, and military expenditures are ballooning. Both laypeople and experts fear that just as in 1914 the murder of an Austrian ***archduke sparked the First World War, so in 2018 some incident in the Syrian desert or an unwise move in the Korean Peninsula might ignite a global conflict.

*deteriorate 악화되다
**warmongering 호전주의
***archduke 대공

- ① 지난 수십 년간은 평화의 시기였다.
- ② 전체 사망 중 폭력의 비율은 농경시대부터 지금까지 14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 ③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군비지출이 감소했다.
- ④ 시리아 사막의 사건과 한반도의 움직임이 세계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15】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가장 관계 없는 문장은?

Because lying takes increased mental effort, some experts on lie detection believe that increasing overall cognitive load may make lying behavior easier to detect in real time because the individual would have fewer cognitive resources to devote to constructing and maintaining a *plausible lie. This cognitive perspective of lie detection suggests an overload should more dramatically increase the amount of time it takes to construct a convincing lie, as compared to when an individual is telling the truth. ① However, most adults have a truth bias and can only detect deception about 50 percent of the time or at about chance levels. ② To overload mental resources, interviewers may ask people to complete additional tasks while being interviewed or **interrogated. ③ They may also add time pressure by asking the person to answer the questions quickly, increase stress, or increase the intensity of ***physiological cues such as tiredness or hunger. ④ All of these extra stressors increase demands on mental effort, which should increase the differences in response times between lying and honest responses.

*plausible 그럴 듯한
**interrogate 심문하다
***physiological 생리적

【문16】카피바라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You thought the beaver was a *rodent of unusual size? The capybara is twice that big—the biggest rodent on Earth. These impressive semi-aquatic mammals are found throughout northern and central South America. Like beavers, capybaras are strong swimmers. Their pig-shaped bodies are adapted for life in bodies of water found in forests, seasonally flooded savannas, and wetlands. Their toes are partially webbed for paddling around, and their reddish to dark brown fur is long and rough—perfect for drying out quickly on land. Like other rodents, capybaras’ teeth grow continuously, and they wear them down by grazing on aquatic plants, grasses, and other plentiful plants.

*rodent 설치류

- ① 카피바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설치류로, 비버보다 두 배 크다.
- ② 카피바라는 북아메리카 남부와 중부에 걸쳐 서식한다.
- ③ 카피바라는 발가락에 부분적으로 물갈퀴가 있고, 털은 길고 거칠어 육지에서 빠르게 마른다.
- ④ 카피바라의 이빨은 계속 자라며, 수생 식물과 풀, 그리고 다양한 식물을 먹으면서 이를 닦게 한다.

【문17】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evolutions in biotech and infotech will give us control of the world inside us and will enable us to engineer and manufacture life. We will learn how to design brains, extend lives, and kill thoughts at our *discretion. Nobody knows what the consequences will be. Humans were always far better at inventing tools than using them wisely. It is easier to manipulate a river by building a dam than it is to predict all the complex consequences this will have for the wider ecological system. Similarly, it will ----- than to **divine what that will do to our personal psychology or to our social systems.

*discretion 재량권
**divine 예측하다

- ① be easier to redirect the flow of our minds
- ② be simpler to avoid using the new technology
- ③ be more difficult to invent new global systems
- ④ be less complicated to reflect our social systems

【문18】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ly who should be taking aspirin regularly, and when, ----- Some researchers believe that the combined benefits for cardiovascular disease and cancer should inspire wider uptake. Burn, who has taken aspirin as a preventative measure in the past, is optimistic about its potential for public health. “We did a big study where we showed that if every 50-something year-old took a baby aspirin for ten years, the national mortality from all causes would be reduced by 4%,” says Burn. Most researchers argue that it should only be restricted to particular patients, however. “It’s one thing to give aspirin to a cancer population but it’s a totally different thing to offer the healthy population something that might harm them as well,” says Martling. That’s because aspirin can have serious adverse effects, and it isn’t likely to work for all people or all cancers.

- ① has been conclusively determined on scientific grounds
- ② remains an ongoing matter of heated debate
- ③ constitutes a pivotal public health priority
- ④ paves the way for innovative therapeutic paradigms

【문19】Steller sea lions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As the largest species of eared seals, male steller sea lions can reach eleven to twelve feet and weigh up to 2,500 pounds. Once fully mature, they also sport a mane of fur around their necks, like a lion. Females are much smaller, growing to about nine feet and around a thousand pounds. Living in cold ocean waters, these sea lions rely on a thick layer of fat called blubber to stay warm. Their large bodies also help them dive deep—more than a thousand feet—to hunt fish and squid at night.

- ① 귀가 있는 물개류 중 가장 큰 종이다.
- ② 수컷은 완전히 성숙하면 목 주변에 사자와 같은 갈기 형태의 털을 갖게 된다.
- ③ 암컷은 약 11~12피트까지 자라고, 무게는 약 1000파운드 정도로 자란다.
- ④ 차가운 바다에 살며 1000피트가 넘는 깊이까지 잠수하여 물고기와 오징어를 사냥한다.

【문20】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didn't make the team, though I did show enough improvement to justify practicing with my friends who had made the team, and that was all I really wanted. I learned that grandma was right: Golf was a rich person's game.

- (A) I resisted the urge to bury my putter in his ear, remembering grandma's *sage advice to "act like you've been there."
- (B) At the course where I worked, few of our customers came from Middletown's working-class neighborhoods. On my first day of golf practice, I showed up in dress shoes, thinking that was what golf shoes were.
- (C) When an enterprising young bully noticed before the first tee that I was wearing a pair of Kmart brown loafers, he proceeded to mock me mercilessly for the next four hours.

*sage 현명한

- ① (B) - (A) - (C)
- ② (B) - (C) - (A)
- ③ (C) - (A) - (B)
- ④ (C) - (B) - (A)

【자료조직개론 25문】

①책형

【문 1】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접근방법 가운데,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의 주된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메타데이터 표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한 곳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 ② 각각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식별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해 여러 가지 경로로 분산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 ③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표준을 특정 상황에 맞는 특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 ④ 메타데이터 요소의 등록이나 확인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문 2】분류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리스(W. T. Harris)의 분류법은 도서를 서가에 주제순으로 배열하기 위하여 숫자를 사용하여 100구분하고, 각 류의 세목은 알파벳 대문자 1자를 부가하였다.
- ② 블리스(H. E. Bliss)의 서지분류법(Bibliographic Classification)은 5개의 공통패킷을 이용한 분석합성식 원리를 수용하여 이후 콜론분류법(Colon Classification)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 ③ 카터(C. A. Cutter)의 전개분류법(Expansive Classification)은 모든 지식을 주제의 진화순서로 배치하였으며, 총 5개의 독립적인 표로 구성하여 장서수가 많은 도서관일수록 상세한 분류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브라운(J. D. Brown)의 주제분류법(Subject Classification)은 자연과학보다 사회과학을 상위에 배정하였으며,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혼합기호법을 채택하였다.

【문 3】다음은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따를 때, '중국의 서지 및 목록'에 대한 올바른 분류기호는?

015 국가별 서지 및 목록
국가서지 및 목록, 지방서지 및 목록, 정부간행물목록 등일
반서지를 포함한다.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특수 지역 및 주제에 관한 서지 및 목록은 016에 분류한다.

- ① 015.0912
- ② 016.912
- ③ 016.0912
- ④ 015.12

【문 4】다음은 커터-샌본 세 자리 저자기호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David Pullman이 쓴 'A biography of President Donald Trump'의 저자기호를 작성한 것으로 옳은 것은?

249 Davi	674 Don	981 Pul	869 Trumbull, J.
251 Davids	675 Donal	982 Pull	871 Trumbull, S.
252 Davidson	676 Donalds	983 Pult	872 Trur

- ① T872p
- ② T871p
- ③ P982t
- ④ T871b

【문 5】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MODS는 도서관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구축된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 ② 기존의 MARC를 보다 상세한 형태로 구축한 도서관에 특화된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 ③ MODS는 인쇄형태 정보자원에 특화된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서지적 구조의 마련을 위해 구축된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 ④ MODS는 HTML 구문을 적용함으로써 MARC의 데이터 요소와 의미를 손실 없이 변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문 6】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접근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요소, 구문, 규칙 등을 상세하게 정의함으로써 정보자원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표준을 특정 상황에 맞는 특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서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접근방법

- ①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application profile)
- ② 크로스워크(crosswalks)
- ③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etadata registry)
- ④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metadata framework)

【문 7】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의 요소 중 <originInfo> 요소의 하위요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issuance>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정보자원이 발행되는 주기를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 ② <frequency>는 정보자원이 간행되는 빈도를 기술하는데 사용하며, 연속간행물 형태의 정보자원일 경우에만 이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place>는 정보자원의 발행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며, 2차적인 하위요소로 <citySection>을 적용하여 발행지명을 입력할 수 있다.
- ④ <dateCaptured>는 정보자원에 수록된 내용이 유효한 날짜를 기술하는데 사용한다.

【문 8】KCR 제5판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체 간 서지적 관계를 구조화하여 기록함으로써 목록의 링크 기능이 강화된다.
- ② 구조적 측면에서 KCR 제4판은 자원유형별 ISBD를, KCR 제5판은 FR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 ③ KCR 제5판은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 측면을 모두 규정하여 기계가독성을 높였다.
- ④ 전자제어를 규칙상에서 명확히 하고, 모든 저작에 대해 전자제어를 실시하도록 한다.

【문 9】다음 중 KORMARC에서 분류기호와 청구기호를 기술하는 필드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056 한국십진분류기호
- ② 080 듀이십진분류기호
- ③ 082 국제십진분류기호
- ④ 086 기타 분류기호

【자료조직개론 25문】

①책형

【문10】십진분류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류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순수기호법이다.
- ② 모든 주제에 대하여 물리적 형태(매체 유형)를 1차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 ③ 계층이 깊어질수록 분류기호의 자릿수가 늘어난다.
- ④ 지식을 10개 주류로 구분하고, 각 주류를 다시 10개씩 계층적으로 세분한다.

【문11】다음 중 도서관에서 청구기호(call number)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SBN
- ② 분류기호
- ③ 도서기호
- ④ 권호기호

【문12】다음 중 RDA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개념 모형으로 옳은 것은?

- ① MARC21과 ISBD
- ② Dublin Core와 EAD
- ③ FRBR과 FRAD
- ④ METS와 MODS

【문13】KDC와 DDC의 주류 구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KDC는 언어가 700번대, DDC는 언어가 400번대이다.
- ② KDC와 DDC 모두 역사가 800번대이다.
- ③ KDC는 문학이 900번대, DDC는 문학이 800번대이다.
- ④ KDC와 DDC는 종교가 모두 100번대이다.

【문14】다음 중 듀이십진분류법 제23판의 보조표에는 해당되나,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의 조기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종교공통구분
- ② 지역구분
- ③ 민족 및 국가구분
- ④ 언어구분

【문15】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의 Top-Level 요소 가운데, MODS 레코드에서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titleInfo>
- ② <name>
- ③ <originInfo>
- ④ <recordInfo>

【문16】다음은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따를 때, 다음 주제에 대한 분류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

809.1-.8 각 문학형식의 역사
문학형식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문학형식에 의한 각국문학사는 해당문학 아래에 분류한다.

- ① 소설사 → 809.3
- ② 중국소설사 → 829.3
- ③ 일본희곡사 → 832.09

【문17】다음 중 한국의 국가서지 주제명표목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립중앙도서관
- ②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④ 국제도서관연맹(IFLA)

【문18】다음은 듀이십진분류표 제23판의 본표와 보조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따를 때, '한국어 성경'에 대한 올바른 분류기호는?

220 Bible
220.53-220.59 Versions in other languages
Add to base number 220.5 notation 3-9 from Table 6
T6 -957 Korean

- ① 220.957
- ② 220.9575
- ③ 220.53957
- ④ 220.5957

【문19】다음은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를 발췌한 것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자기호로 옳은 것은?

자음기호	모음기호 (초성이 초이 아닌 글자)	모음기호 (초성이 초인 글자)
ㄱ 1	ㅏ 2	ㅑ (ㅓ ㅕ ㅗ) 2
ㄴ 19		
ㄷ 2	ㅓ (ㅕ ㅗ) 3	ㅑ (ㅓ ㅕ ㅗ) 3
ㄹ 29		
ㅁ 3	ㅑ (ㅓ ㅕ ㅗ) 4	ㅓ (ㅕ ㅗ ㅑ) 4
ㅂ 4		
ㅅ 5	ㅓ (ㅕ ㅗ ㅑ) 5	ㅑ (ㅓ ㅕ ㅗ ㅑ) 5
ㅇ 6		
ㅈ 7	ㅑ (ㅓ ㅕ ㅗ ㅑ) 6	ㅓ 6
ㅊ 8		
ㅋ 87	ㅡ (ㅡ) 7	
ㅌ 88		
ㅍ 89	ㅣ 8	
ㅎ 9		

- ① 이청준 → 이84
- ② 김규식 → 김16
- ③ 웹, 테리 → 웹884
- ④ 웹스터, 헨리 → 웹94

【문20】커터-샌본 세 자리 저자기호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료의 저자명에 해당하는 번호가 없는 저자명의 경우에는 바로 앞의 번호를 채택하여 기재한다.
- ② 숫자 '0' (zero)은 알파벳 대문자 'O'와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저자명 중 Mc, Mac, M'으로 시작되는 저자명은 자료의 표기에 관계없이 모두 Mc로 처리하여 기호를 부여한다.
- ④ 전기자료는 그 대상 인물의 이름을 기호화하고, 저자명을 저작기호로 기재한다.

【문21】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FRBR에서는 서지적 영역을 대상으로 정보원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검색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10개의 개체로 추출한 후 그것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 ② FRBR은 목록레코드의 데이터 요소를 이용자 요구와의 관계에 착안하여 재편한 것이다.
- ③ FRBR은 데이터 요소의 구조 방법이나 표현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요소를 유형화하고, 이들 데이터 요소들이 각각의 고유한 레코드 중에서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지적인 틀을 제공한다.
- ④ FRBR은 서지레코드로 기록된 데이터와 이용자 요구를 연결시키기 위해 명확히 구조화된 전거를 제공하고 있다.

【문22】LCC(미의회도서관분류법)의 기호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아라비아숫자만 사용
- ② 로마숫자만 사용
- ③ 알파벳과 아라비아숫자 혼합 사용
- ④ 알파벳만 사용

【문23】다음 중 KORMARC의 주제명부출표목으로 필드와 기술이 옳게 작성된 것은?(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① 610 a게이츠, 린다 v강연집
- ② 630 a불전. p화엄경 x해설
- ③ 650 a한강 x생태계
- ④ 651 aArchitecture, Modern y19th century

【문24】KCR 제5판에서 단행본 발행 사항 영역의 기술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 발행지 - 발행연도
- ② 발행지 -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 발행연도
- ③ 발행연도 - 발행지 -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 ④ 발행지 - 발행연도 -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문25】듀이십진분류법 제23판의 최후수단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문헌에 대해 다수의 분류기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각각의 기호가 모두 동등하게 유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종의 우선순위이다.
- ② 사물의 종류(kinds)가 사물의 일부(parts)보다 우선이다.
- ③ 사물의 일부(parts)가 사물의 부품을 만들어내는 재료(materials)보다 우선이다.
- ④ 사물이나 재료(materials)에 대한 작업(operations)이 사물이나 재료의 속성(properties)보다 우선이다.

【문 1】군집분석(Cluster Analysi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집 내 객체 간의 유사성은 최대화하고, 서로 다른 군집 간의 유사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② 비계층적 군집화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주어진 개수의 군집으로 객체들을 할당하는 K-means 알고리즘이 있다.
- ③ 계층적 군집화는 유사한 군집끼리 묶어가는 방식으로, 주요 방법으로는 단일 연결법, 완전 연결법, 와드 연결법 등이 있다.
- ④ 군집 분석은 사전에 정의된 범주(Category)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문 2】2024년에 A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수가 300편이고, 이들 논문이 2024년에 900회, 2025년에 600회 인용되었다면 A학술지의 즉시성 지수(Immediacy Index)는 얼마인가?

- ① 2 ② 3 ③ 4 ④ 5

【문 3】아래 시소러스 표현을 보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서관
NT 공공도서관
NT 대학도서관
RT 사서
RT 문헌정보학
전자도서관
USE 디지털도서관
디지털도서관
UF 전자도서관
UF 벽 없는 도서관

< 보 기 >

- ㉠ '전자도서관'은 비디스크립터이며, 색인 시 '디지털도서관'으로 대체하여 사용해야 한다.
- ㉡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도서관'과 등가관계에 있다.
- ㉢ '사서'는 '도서관'과 연관관계에 있다.
- ㉣ '벽 없는 도서관'이 디스크립터이고 '디지털도서관'이 비디스크립터이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문 4】다음 중 MeSH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MeSH용어는 개념간의 관계를 수평적인 구조로 배열한 표이다.
- ㉡ 비통제어휘(uncontrolled vocabulary)이다.
- ㉢ MEDLINE/PubMed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 ㉣ MeSH는 Medical Subject Headings의 약자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문 5】메타데이터의 인코딩(Encoding) 구분 표준 및 마크업 언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HTML: 이식성이 높으나 한정된 태그 구조로 인해, 복잡한 문서 구조나 임의의 레이아웃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② XML: HTML의 구조적 한계와 SGML의 복잡성을 보완하여,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W3C가 제안한 표준 메타언어이다.
- ③ SGML: 강력한 문서 구조 정의 기능을 가졌으며, 초기부터 웹 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개발되어 현재 웹 메타데이터 인코딩의 핵심 표준으로 쓰인다.
- ④ RDF: 웹 자원의 메타데이터 정의를 위한 개념적 모델로, 데이터를 자원(subject), 속성(predicate), 속성값(object)의 트리플(triple) 구조로 표현한다.

【문 6】동시출현분석(Co-occurrence Analysis) 및 동시출현 단어분석(Co-word Analysi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시출현분석은 분석 단위에 따라 동시출현 단어분석, 공저자(co-authorship) 분석, 동시분류(co-classification) 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동시출현 단어분석은 두 단어가 동일 문헌에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측정하여 단어 간의 연관성을 산출하는 기법이다.
- ③ 동시출현 단어분석의 주요 가정은 '동시출현 빈도가 낮을수록 두 단어 사이의 개념적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이다.
- ④ 동시출현 단어분석의 주요 단계로는 키워드 추출 및 정제, 행렬 작성, 네트워크 분석 등을 활용한 시각화, 지적 구조 해석 등이 포함된다.

【문 7】정보검색에서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TF-IDF 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TF는 특정 문헌 집단 전체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한 총 횟수를 의미한다.
- ② IDF는 어떤 단어가 소수의 특정 문헌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날 때 값이 작아진다.
- ③ 흔하게 쓰이는 관사나 조사 등은 많은 문헌에 등장하므로 IDF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 ④ 특정 단어가 한 문헌 내에서 자주 출현하고, 전체 문헌 집단에서는 적은 문헌에만 출현할수록 해당 문헌에서 그 단어의 가중치는 높아진다.

【문 8】정보격차의 유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접근격차는 정보기기와 같은 물리적·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의 기회 격차로, 후속 단계들에 대한 선행요소이자 기반 요건이다.
- ② 역량격차는 개인 간에 정보기기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만으로도 정보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질적 이용격차는 이용의 다양성과 활용 수준의 격차를 의미하며, 정보기기를 이용해 얼마나 다양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가와 얼마나 유용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④ 성과격차는 동일한 접근성과 이용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정보혜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 9】조합색인(coordinate index)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색인이란 두 개 이상의 색인어를 조합하여 문헌의 주제를 만들어 내는 색인법이다.
- ② 전조합색인은 복합주제를 하나의 색인으로 표현하여 한 번의 검색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후조합색인은 탐색 이전에 색인작성자가 색인어를 미리 조합해 두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로 개념을 조합할 필요가 없다.
- ④ 전조합색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제명색인과 분류색인이 있다.

【문10】인공지능기본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공지능윤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
- ②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 ③ 인공지능: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 ④ 생성형 인공지능: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

【문11】특정 연구자의 학문적 성과와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어떤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중 N 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N편일 때의 N의 최댓값”을 의미하는 것은?

- ① 파인용 지수(Impact Factor)
- ② h-지수(h-index)
- ③ 아이겐팩터 지수(Eigenfactor Score)
- ④ 즉각성 지수(Immediacy Index)

【문12】정보검색 모델 중 ‘벡터 공간 모델(Vector Space Model)’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헌과 질의를 다차원 공간의 벡터로 표현한다.
- ② 질의와 문헌 간의 유사도를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등을 통해 계산한다.
- ③ 문헌 내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주로 TF-IDF 기법을 사용한다.
- ④ 질의 용어가 문헌에 정확히 일치(Exact Match)해야만 검색 결과로 출력되는 엄격한 이진(Binary) 방식을 취한다.

【문13】디지털 도서관과 오픈엑세스 환경에서 논문, 저널, 데이터 세트 등의 디지털 객체에 부여되는 영구적인 국제 표준 식별자로, 웹 주소(URL)가 변경되더라도 자원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 ①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 ②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③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 ④ 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문14】메타데이터의 ‘내용규칙(Content Rule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용규칙은 메타데이터 요소의 값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원로부터 추출되고 표현되는가에 대한 규칙을 제시하여, 메타데이터 작성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요소의 값을 선정하는 방법’의 예로는, 특정 정보자원에 본표제와 축약표제 등 여러 서명이 존재할 때 그 중 어떤 서명을 본표제로 채택할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③ ‘요소의 값을 표현하는 방식’은 메타데이터 작성 시 값을 자연어로 자유롭게 기술할 것인지, 아니면 통제어휘집에서 추출한 통제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더블린 코어(Dublin Core)에서 날짜를 표기할 때 ‘W3CDTF’ 형식을 지정하여 ‘YYYY-MM-DD’와 같이 특정 형식으로 입력하도록 표준화하는 것은 ‘요소의 값을 표현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문15】구글의 페이지랭크(PageRank Algorith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웹 페이지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 ㉡ 중요한 페이지일수록 실제 페이지랭크 값은 높게 된다.
- ㉢ 어떤 질의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웹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랭크 값을 갖는다.
- ㉣ 페이지랭크에서 모든 페이지랭크 값의 합은 0이 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문16】다음 파일 포맷 중 장기 보존포맷으로 가장 적합한 포맷으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MPEG - GIF
- ② XML - HWP
- ③ GIF - XLS/XLSX
- ④ PDF/A - TIFF

【문17】다음 중 특정 커뮤니티(분야)와 해당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표준(Metadata Standard)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도서관: MODS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 ② 출판계: ONIX (ONLine Information eXchange)
- ③ 예술작품: LOM (Learning Object Metadata)
- ④ 연방정부 정보: GILS (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

【문18】오픈엑세스(OA) 리포지터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 리포지터리용 플랫폼으로는 Dspace와 Eprints 등이 있다.
- ② OpenDOAR은 OA 리포지터리를 검색할 수 있는 목록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③ 주제 리포지터리는 특정 학문 분야나 주제의 연구성과물이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온라인 아카이브이다.
- ④ 기관 리포지터리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된다.

【문19】ISO/IEC에서 채택한 국제표준인 토픽 맵(Topic Maps)의 핵심 구성요소로 가장 옳게 묶인 것은?

- ① 주제(topic) - 연관(association) - 발현(occurrence)
- ② 자원(resources) - 속성(property) - 값(value)
- ③ 개체(individual) - 속성(property) - 데이터 타입(type)
- ④ 주어(subject) - 술어(predicate) - 목적어(object)

【문20】부다페스트 선언(BOAI, 2002)에서 제시한 오픈액세스(OA)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용자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법률적.기술적 장벽 없이 논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저작에 대한 통제권은 출판사가 가지며,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④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최대한 재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문21】Creative Commons(CC) 라이선스의 기본 조건 요소 중 모든 CC 라이선스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필수 조건은?

- ① ND(변경금지)
- ② SA(동일조건변경허락)
- ③ BY(저작자표시)
- ④ NC(비영리)

【문22】저작권법에 기술된 저작물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 ③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문23】검색성능 평가 척도 중 정확률(precision)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검색시스템이 부적합문헌을 검색해 내지 않는 능력이다.
- ② 검색되지 않은 적합문헌의 비율이다.
- ③ 검색된 부적합문헌의 비율이다.
- ④ 정확률 40%는 검색된 문헌 10개 가운데 6개가 적합문헌임을 의미한다.

【문24】다음 중 더블린 코어(Dublin Core) 메타데이터의 15개 기본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Title(표제)
- ② Creator(저작자)
- ③ Affiliation(소속기관)
- ④ Format(형식)

【문25】베르지히와 네벨링(Wersig & Neveling, 1975)이 분류한 정보학에 대한 견해 중, 사서나 분류이론 및 시스템 설계에 관심을 가지는 실무 중심의 부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상 지향적 견해(phenomenon-oriented view)
- ② 방법 지향적 견해(means-oriented view)
- ③ 기술 지향적 견해(technical-oriented view)
- ④ 목적 지향적 견해(purpose-oriented view)